

## 철학사

### 32 데카르트의 성찰 1

####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저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르네 데카르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그의 명상록, 총 여섯 편의 명상록에서 그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볼 건데요. 첫 번째 명상록의 주제는, 제 생각에는, 아주 간단하게, 당대뿐 아니라 이전 세기에도 회의주의를 낳았던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성의 부재.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두 번째 명상에서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하고 의심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

세 번째 명상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명상에서는 이성의 신뢰성과 오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에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류 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마치 선과 악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네. 다섯 번째 명상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그의 전반적인 관심사는 물질적인 사물, 즉 물질적인 몸에 관한 필연적인 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명상에서는 물질적 존재에 관한 몇 가지 우연적인 진리를 다룹니다.

전반적인 상황 은 이렇습니다 .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의 방법론은 연역적 체계이기 때문에 사고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즉, 그는 초기 공리를 설정하고 일련의 증명을 통해 하나씩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 전체에 걸쳐 선형적인 방식으로 이어지는 긴 추론의 사슬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주제들의 연속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추론된 사고 체계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가 첫 번째 명상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우선 두 번째 명상, 그다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명상 2에서 그는 흔히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 ,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제시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 대신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처럼 이를 풍자하려 시도해 왔습니다.

장 폴 사르트르의 자전적 작품 제목이 '구토' 였던 것처럼, 누군가 이 상황을 풍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 뱃멀미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싶겠지만, 그러지 않죠. 어쨌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나는 생각한다, 혹은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다시 말해, 최초의 공리는 첫 번째 명상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 자체가 제가 의심한다는 직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확립시켜 준 거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걸 의심한다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거의 필연적인 진실과도 같습니다.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필연적인 진실이다.

하지만 그는 그 전제를 되짚어보면서 의심은 사고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ubito"(의심) 대신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코기토'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는 범위의 점이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단순한 명제 안에는 의심, 지각, 상상, 긍정, 부정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의식 상태와 의식 활동이 포함된다.

의식의 활동. 제가 늘 접하는 사람들처럼, 만약 여러분이 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차가운 지적 활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의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식적인 감정, 즉 긍정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지의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지성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성과 의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의식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사고의 범주에 의식의 내용과 의식의 행위를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의 내용은 그가 일반적으로 관념이나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념이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는 그것을 사고의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대상은 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관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의식 행위 자체도 포함됩니다.

생각하는 행위. 그리고 물론, 잠시 멈춰서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긍정하는 행위.

부정하는 행위. 의심하는 행위. 바라는 행위.

희망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그는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거나 "생각을 저장하는 어떤 저장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마음속에서 말이죠. 아니, 그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의식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주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고의 주체. 의지를 가진 주체 . 희망을 가진 주체.

의심하는 주체. 왜냐하면 우리가 자의식 속에서 인식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활동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대상들. 관념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구분은 그의 후대 비평가들에 대한 답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증명이나 다른 단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하거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식 속의 성찰적 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 지각이나 외부 사물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별개로, 내면을 들여다보며 성찰할 때 비로소 이를 깨닫게 됩니다.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감각 지각을 통해 매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신체적 자각을 통해 매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정신적인 자각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정신적 자각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명상 섹스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그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물질적인 것의 존재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한 회의론, 완전한 의심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그는 물질적인 속성이나 물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속성, 즉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리적인 감각과는 무관한 거죠.

그게 바로 그가 밀랍에 대해 그린 그림의 요점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당신의 눈이 반짝이며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이 그 그림을 읽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는 밀랍 덩어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열하면 물리적 성질이 변해요. 네, 녹죠. 부드러워져요.

아마 액체일 거예요.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즉, 물리적 속성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밀랍 조각의 물리적 속성이 이처럼 가변적 임에도 불구하고, 밀랍을 밀랍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신적인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변하지 않는 속성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변하는 속성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변하는 속성을 지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왁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해 되지요? 그의 요점은 의식 바로 앞에 오는 것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왁스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의식은 단순히 물리적 속성들의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의식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식론적 표상 이론을 다룰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자신의 관념과 정신적 행위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정신적인 생각과 행동은 외부의 물체나 다른 외부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상태는 어떤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요? 즉각적인 표상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즉 직관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도 인식하는데, 다시 말해 그 존재를 추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물체는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육체든, 다른 정신이든, 신이든, 당신의 의식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해 되시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의식뿐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우리 자신의 의식을 통해 그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험적 증명이어야 한다. 경험적 증거가 아닌, 자신의 의식 내용에 근거한 증명 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그가 세 번째 명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른 마음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면, 다른 마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증명 해야 합니다. 육체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증명 해야 합니다.

20세기 초 옥스퍼드 철학자였던 윌리엄 템플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자연, 인간, 신』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듯하며, 그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는 '데카르트의 실수'라는 제목의 장을 썼습니다.

데카르트의 실수. 실수란 잘못된 단계, 틀린 단계를 의미합니다. 데카르트의 실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의식 내용뿐이라는 주장. 이것이 바로 현대 철학이 극복해야 할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데카르트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네, 현대 인식론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당신은 자신의 몸이 있다는 것, 외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추론 외에는 신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어려워지죠. 물론 우리는 신의 존재를 논증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시도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데카르트의 출발점이 어떤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까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정말 마음을 갖고 있는지 걱정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해되지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제 의식을 즉시 꿰뚫어 볼 수 있는 텔레파시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데카르트에 따르면, 다른 몸의 존재를 증명하기 전에는 다른 마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체 행동과 제 신체 행동 사이의 유사성, 그리고 당신의 신체 행동과 당신의 마음 사이의 상호 관계를 알게 되면, 유추를 통해, 즉 유추를 이용한 논증을 통해 제 몸과 제 마음 사이에도, 당신의 몸과 마음 사이에도 유사한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경우에 그것을 알고 있으니, 내 경우에도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유추적 추론 외에는, 당신은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말이죠.

음,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말은, 이 표상론적 인식론에 대한 대안적 인식론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마음을 아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마음, 다른 의식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헤겔에 이르러 보면, 그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지요? 그리고 실존주의 전통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해 온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기토.

자, 그렇다면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존재하는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처음에 이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밝히지 않는다.

만약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성립한다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 무의식 상태일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꿈도 꾸지 않는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해되지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점은, 내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의식의 현재 순간에 대한 유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아론이라는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종의 막다른 골목이죠.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유아론자는 "나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즉, Solus ipsa, 오직 자아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순간의 유아론은 바로 이 순간, 나만이 존재한다는 견해입니다.

가상의 출발점인 유아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마음들에 대해서는, 하물며 신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일까요? 제 의식의 단절 문제 때문입니다. 제 의식은 단절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밤에 그 단절이 길수록 다음 날 더 행복합니다.

알겠어요? 틈이 있는 의식 말이에요. 네. 하지만 내 의식이 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과거의 의식들이 내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기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의식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입니다. 제 현재의 의식 속에는 제가 과거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표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자각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현재의 의식뿐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의식 때문에,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른다.

현재 순간의 유아론. 현재 순간의 유아론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

첫째,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내 의식의 불연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기억의 문제 말이죠. 기억이란 결국 과거 의식의 현재적 표상일 뿐이니깐요. 그래서 존 로크나 데이비드 흄 같은 사람들은 개인적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려고 했던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동일한 자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 이해되시나요? 개인적 정체성 말입니다. 기억의 신뢰성에 대해 논쟁하려는 거죠.

사실상 데이비드 흄은 두 손을 들고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저절로 드러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만, 미래가 오면 그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앞으로 나아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식이 현재 순간에만 국한된다는 유아론 말이죠. 이것만 봐도 그가 어떤 반론에 부딪히게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요점은 그가 처음에 행동했던 직관, 즉 의심(dubito)과 생각(cogito)이 그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ergo sum'을 직관적으로 명백한 결론 으로 받아들입니다 . 영어로는 두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가 쓴 라틴어나 프랑스어에서, 음, 라틴어로는 한 단어예요. 코기토(Cogito). 프랑스어로는 두 단어죠.

보시다시피, 단 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행위, 즉 코기토에 관련된 이 '나'는 무엇일까요? 그는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존재 , 즉 사고 하는 주체 라는 것을 꽤 명백하게 받아들입니다.

생각하는 존재. 그의 표현, '인종은 생각한다(race cogitans)'. 'Cogitans'는 현재분사로, 현재 진행형을 나타낸다.

인종, 사물, 실체, 존재. 인종은 사고한다. 하지만 그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론에 성급하게 도달했다.

자체를 즉각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면 , 즉 성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은 정신적인 실체이자, 비물질적인 존재, 영혼입니다.

알 켜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그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예요.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 그리고 그는 이걸로 영혼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는 저서의 맨 처음 부분에서 신과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스콜라 철학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 즉 신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음, 그는 우리가 생각과 생각 자체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좀 사색가 같더군요. 이해 되시죠?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존재를 영혼, 내면, 비물질적인 마음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출간 전에 그의 명상록을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낸 토마스 홉스는 분명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 생각하는 존재가 육체가 아니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토마스 홉스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유물론을 기억하시죠? 생각하는 존재가 왜 육체가 아니어야 할까요? 그는 물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비물질적인 영혼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를 가진 사상가가 될 수 없겠습니까? 이에 대해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나는 마음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인식하지만 몸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인식하지만 몸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는 내가 영혼의 실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 '개념'이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는 내가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의 본질이나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지 막연하게나마 짐작이 갑니다. 그는 '막연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짐작'이라는 뜻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짐작'이라는 말은 명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한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어쨌든 그는 이러한 개념 때문에 영혼 실체가 생각하는 주체라는 주장에 더 많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며, 물질이 영혼 실체, 즉 육체가 생각하는 주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적다고 생각 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존재, 영혼이다.

자, 그럼 나중에 데이비드 흄이 1800년경에 제기한 또 다른 반론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는 마음과 우리 자신의 내면적 자각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각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관념뿐이다. 내 마음을 자각한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는 관념들의 묶음만을 자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런데 흄은 정신적 행위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관념에 대한 자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주장은 우리가 정신적 행위, 즉 행위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각한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긍정하고, 부정하고, 결정하는 데에도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생각하고, 추론하고, 추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그런 경우에 작용하는 행위 주체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주장은 단순히 표상적 관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신 활동에 대한 내성적 의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흄에게서는 그런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냥 관념들만 있을 뿐입니다. 정신 활동이 없다면 행위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해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자각 없이 마음이 존재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흄은 그저 회의론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흄 역시 물질적 실체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고요. 따라서 회의주의로 출발했던 데카르트는 데이비드 흄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출발점이었던 회의주의로 귀결되는 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부터 흄까지의 인식론 역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초주의적 접근법이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 회의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시도였다는 겁니다. 네.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이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흄은 회의주의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정신적 습관의 산물인 믿음 의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실용주의였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루스 씨? 데카르트가 그런 틀에 갇히면서 그가 정신적 행위로서의 직관을 정의하는 방식이, 좀 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하는 '내 몸에 직관이 있다'는 방식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현실주의자라면 "아니, 사실 나는 몸으로 직관을 느껴."라고 말하겠죠.

제가 아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핵심은 대리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그 단어를 어딘가에서 지워버린 것 같네요.

네, 보시다시피 직관은 직접적인 것입니다. 표상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실재론, 즉 지난주나 재작년에 델러스 윌라드가 이야기했던 그런 종류의 실재론은 직접적 실재론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사실주의를 언급했습니다. 토머스 리드를요. 그는 GE 무어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 실재론입니다. 헤겔이 타인의 마음을 직접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 실재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실존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가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메스꺼움을 느낄 때는 자신의 신체적 존재를 직접적으로 자각하게 되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아요. 문제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하는 거죠.

직접적 지식 또는 표상적 지식. 아니, 의미론이 아닙니다. 네, 두 가지 다른 설명 방식의 적절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그가 실재론의 몇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의도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마음은 직접적으로 외부의 것을 파악합니다. 이는 정신적 의도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실체적 자아의 중요성입니다.

즉, 그러한 의도와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목표를 겨냥한 것이죠.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7세기 와 18세기의 인식론이라는 핵심 문제를 실제로 제기한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데이비드? 네, 여기에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논증 과정의 공백 같은 것이죠. 사실이 아닌데도 언급되지 않은 전제 같은 거요. 뭐, 그런 종류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바로 그런 오류가 이 표상론적 관점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 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것이 의식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네, 왜냐하면 루스가 말했듯이, 제가 제 몸을 자각하고 있거나,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제가 제 몸에서 구토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즉 즉각적인 방식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된 설명이었다는 사실만 알게 되는 셈이네요. 아시다시피, 구토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과 실제로 구토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신은 구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그리고 그의 주장 안에서, 당신이 전에 말했듯이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흠이 실제로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흠스는 당신이 생각하는 존재, 즉 비물질적인 영혼을 가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오류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흠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추론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말합니다. 즉,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넬, 당신은 어떻게 "나는 존재하고, 나는 하나의 사물이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 좋아요 , 그게 다음으로 다뤄야 할 주제네요.

짐? 좀 덜 시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주제는 조지 버클리에게서도 다시 등장하는데, 그는 주관적 이상주의의 기반으로 비슷한 종류의 표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조지 버클리는 배고픔이라는 개념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의 예는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18세기 영국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누가 저명한 버클리 주교의 말을 반박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돌멩이를 찼다. 아, 아프다. 이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진짜 고통이다.

이에 버클리는 "물론 고통이라는 개념 자체는 자발적인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비자발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차이점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관념일 뿐입니다. 비자발적인 관념도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도 아마 같은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현재 구토를 하는 방식이나 식사를 하는 방식은 자발적인 반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비자발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둘 다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데카르트와 버클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리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팀? 음, 데카르트와 신중하게 논쟁하는 데 집중하는 무형의 존재가 피곤해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육체적인 피로는 있겠지만, 정신적인 피로도 있지 않을까요? 순전히 정신적인 피로 말이에요. 데카르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버클리도 그렇게 대답하겠죠.

데카르트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신체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면 알겠지만, 신체와 정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즉, 신체가 피로해지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음흠.

네, 흥미로운 점은 제가 밤 9시나 10시쯤 되면 머리가 멍해진다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는 괜찮고, 밤에는 멍해지죠. 왜 그럴까요? 데카르트라면 당연한 이유라고 할 겁니다.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도 영향을 받네요. 네. 맞아요.

'물질'이라는 단어를 물리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질'은 '사물'을 뜻하는 'res'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며, 우리는 일상 영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이 논쟁의 핵심은, 즉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논의 중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이나 '실체'와 같은 용어는 반드시 물리적인 사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실체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서브스타오. 고등학교 때 라틴어 배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완전 야만인들 같으니.

서브스타오, 즉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이죠. 아니, 물론, 아시다시피 그리스인, 로마인, 아니면 야만인밖에 선택지가 없잖아요. 적어도 고대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모든 의식 상태와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실체는 바로 마음 그 자체인 거죠. 데이비드, 데카르트의 경우, 만약 그가 비자발적 관념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비자발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현재 순간의 유아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관념은 자기모순으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네모난 원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의식적인 상태인데, 당신은 무의식적인 의식에 대해 묻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네, 정신적인 상태들이 있죠. 꿈을 꾸는 동안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꿈은 의식의 상태인 거죠.

깨어있는 의식은 아니지만, 의식적인 상태이긴 해요. 가끔 꿈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나요? 무의식이나 반의식적인 영향이 의식 상태에 작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식으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생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가요? 물론, 그 의식이 일어나는 원인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심층심리학은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원인들을 발견해냈죠. 발견했다고요? 글썄요, 가설을 세웠다고 봐야죠. 네.

원인 규명에 관하여. 좋아, 명상 3. 자넨이 그걸 원해.

명상 3. 여기까지 와보니,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관념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데카르트가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 이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제는 단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나는 마음의 존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다.

그러므로 그가 신의 존재를 주장하려면 이 두 가지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근거로 주장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명상 3의 주요 내용은 우리의 실제 관념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 그러니까 제 생각 중 하나죠. 다른 하나는 정신의 존재입니다. 네.

두 경우 모두에서 그가 하려는 것은 인과적 논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과적 논증 말이죠. 정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부차적인 역할만 합니다.

그것은 신의 개념에서 비롯된 논증에 녹아든 부차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신의 존재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여기, 아주 명백하게, 나는 유한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다른 것들에 대한 마음의 존재와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마음의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마음의 존재에 대해 다루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 즉 행위자와 관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사고에 대한 초기 설명에서 이러한 것들을 도출해냅니다.

생각들이 있고, 행위자, 즉 생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질문은 이것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즉, 인과관계에 대한 논증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다면, 물론 육체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긴장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거의 그럴 시간이니깐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있다면, 인과적 논증에 접근할 때 그가 숨겨진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즉, 현실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연적인 것이든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념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연적인 마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앗!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음, 모든 것을 유보하려고 하면 결국 유보하지 못한 무언가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첫 번째 명상에서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과 원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며 그에 대한 논증을 펼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세 가지 종류의 관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생각, 우연히 생겨난 생각,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생각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생각은 제가 지어낸 생각, 즉 허구입니다. 예를 들어 나비 날개를 달고 꼬리에 분홍색 물방울 무늬가 있는 털복숭이 기린 같은 것이죠.

보시다시피, 그건 허구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 요인이나 외부 원인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캠퍼스에 나무가 있다는 제 생각은 우연적인 거예요. 감각 기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때문이죠. 하지만 선천적인 아이디어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발적 관념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것입니다. 즉, 우발적 관념은 비자발적이고, 인위적 관념은 자발적입니다. 이러한 우발적이고 자발적인 관념의 존재 자체가, 그가 말했듯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요. 보세요, 저는 칼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좋은 싫든,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과적 관념이 관념을 갖는 바로 그 경험 속에 주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과 원리가 그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인과 원리 같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의 모든 철학적 결론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다룰 때 길슨의 글을 읽어보셨죠? 길슨은 데카르트에 관한 책, 『르네 데카르트에 대한 중세 철학의 영향』을 썼습니다. 꽤 두꺼운 책입니다.

데카르트는 중세 철학의 모든 결론을 유보하는 척했고, 길슨은 중세 철학이 르네 데카르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네, 전제 없는 사고를 시도해 보면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제 없는 과학은 허상에 불과하죠.

데카르트에게는 그랬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전제를 의식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생각들입니다. 중요한 건, 무의식적인 생각이라면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들이 당신을 잡았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네요.